

2026. 02. 11. 12:45

딸아이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.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원수지고 살 것도 아닌데 해줄것은 해줘야지요. 2026년이 되어 용돈이 15만원이 되었습니다. 반년 후에는 16만원이 되겠군요.

오늘은 부모님 위/대장 내시경을 하고 내일 퇴원을 하십니다. 아버지는 용증이 많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있으면 싹 제거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또 5년간 지낼수 있으니까요.

우스운 이야기지만 아가는 어머니께서 제 가운이 지저분하다고 뉘라 하셨습니다. 이거... 원래 입다보면 누렇게 변하는 걸요. 설날에 유미에게 뉘라 하시겠다고 하셔서 미리 알려줬습니다. 역시 가족이 직장에 있으면 신경이 쓰입니다.

그나저나 어제까지 전 3일 연속으로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습니다. 덕분에 새벽에 일어나 주식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여유자금도 없었으니 괜찮습니다. 다만 방금 4,100 만원을 환전 했으니 오늘, 내일은 살펴봐야겠군요. 특히 이 중에서 3,800 만원은 채권 자금이라 적당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.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채권 자금은 채권에 넣어두고 싶지만, 향후 3~5년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아 주식이 나아보이기도 합니다. 다만 주식은 언제나 폭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고민스럽네요. 가장 믿을직했던 BRKB가 배신을 해서 현재는 할 것이 딱히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VCLT를 전량 매수한후 이자나 받으며 추이를 지켜보고 싶네요. 오늘 환전한 금액으로 전량 매수를 하면 연간 약 \$1,300의 이자가 들어옵니다. 네... 역시 iNAV가 낮을때 사야겠습니다. ... 고민스럽네요. 미국 2025년 GDP 성장률이 약 2.2%. 물가상승률이 약 2.5%입니다. 이러면 5.4%의 VCLT를 사더라도 절반밖에 남지를 않습니다. 네...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오. 그래서 참고 채권을 사야겠지요. 안전자산 비율이 현재 24%에 불과합니다. 너무 낮아오. 반대로 주식은 76%에 달하고요.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투자는 원래

지루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하나까요.

18:54

잠시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읽었는데, 아직 AMZN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상당수의 AI 인프라 이용 고객을 GOOGLE과 MSFT에게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실적 자체는 견조한 듯 하네요.

어찌 해야 할까. 대략 \$10,00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

이걸 한번에 들어갈지 아니면 분할을 할지 물어신다면 \$6,000 후 \$4,000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같은 투자 그룹에 속한 IBM이 현재 \$6.600 이거든요.

오히려 잔액 \$4,000을 AAPL에 넣는 것이 나아보입니다.

... 모르겠네요. 언제나 투자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. 사실 그래서

항상 무섭습니다. 여유자금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. 투자는 정말

어렵습니다

